언리얼 엔진의 메모리 관리

(Memory Management in Unreal Engine)

언리얼 엔진의 메모리 관리 방식을 파악하고, 언리얼 오브젝트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예제 실습

강의 목표

- 언리얼 엔진의 메모리 관리 시스템의 이해
- 안정적으로 언리얼 오브젝트 포인터를 관리하는 방법의 학습

언리얼 엔진의 자동 메모리 관리

C++ 언어 메모리 관리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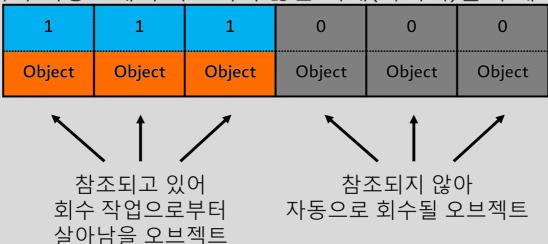
- C++은 저수준으로 메모리 주소에 직접 접근하는 포인터를 사용해 오브젝트를 관리한다.
- 그러다보니 프로그래머가 직접 할당(new)과 해지(delete) 짝 맞추기를 해야 한다.
-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잘못된 포인터 사용 예시
 - 메모리 누수(Leak): new를 했는데 delete 짝을 맞추지 못함. 힙에 메모리가 그대로 남아있음.
 - 허상(Dangling) 포인터 : (다른 곳에서) 이미 해제해 무효화된 오브젝트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
 - 와일드(Wild) 포인터 : 값이 초기화되지 않아 엉뚱한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.
- 잘못된 포인터 값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, 한 번의 실수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킴.
- 게임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프로그래머가 실수할 확률은 크게 증가한다.

C++ 이후에 나온 언어 Java/C# 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

포인터를 버리고 대신 가비지 컬렉션 시스템을 도입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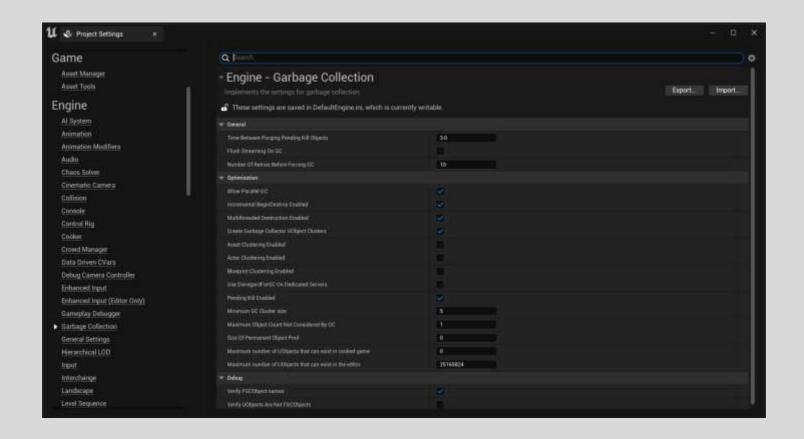
가비지 컬렉션 시스템

-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감지해 메모리를 회수하는 시스템.
- 동적으로 생성된 모든 오브젝트 정보를 모아둔 저장소를 사용해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추적
- 마크-스윕(Mark-Sweep) 방식의 가비지 컬렉션
 - 1. 저장소에서 최초 검색을 시작하는 루트 오브젝트를 표기한다.
 - 2. 루트 오브젝트가 참조하는 객체를 찾아 마크(Mark)한다.
 - 3. 마크된 객체로부터 다시 참조하는 객체를 찾아 마크하고 이를 계속 반복한다.
 - 4. 이제 저장소에는 마크된 객체와 마크되지 않은 객체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.
 - 5. 가비지 컬렉터가 저장소에서 마크되지 않은 객체(가비지)들의 메모리를 회수한다. (Swee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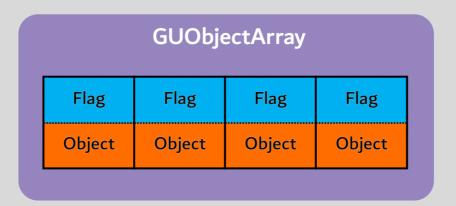
언리얼 엔진의 가비지 컬렉션 시스템

- 마크-스윕 방식의 가비지컬렉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함.
- 지정된 주기마다 몰아서 없애도록 설정되어 있음. (GCCycle. 기본 값 60초)
- 성능 향상을 위해 병렬 처리,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능을 탑재함.



가비지 컬렉션을 위한 객체 저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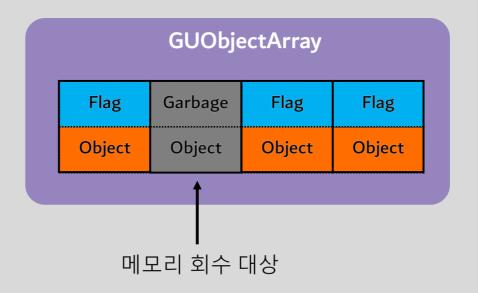
- 관리되는 모든 언리얼 오브젝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역 변수: GUObjectArray
- GUObjectArray의 각 요소에는 플래그(Flag)가 설정되어 있음.
- 가비지 컬렉터가 참고하는 주요 플래그
 - Garbage 플래그 : 다른 언리얼 오브젝트로부터의 참조가 없어 회수 예정인 오브젝트
 - RootSet 플래그: 다른 언리얼 오브젝트로부터 참조가 없어도 회수하지 않는 특별한 오브젝트



가비지 컬렉터는 GUObjectArray에 있는 플래그를 확인해 빠르게 회수해야 할 오브젝트를 파악하고 메모리에서 제거함

가비지 컬렉터의 메모리 회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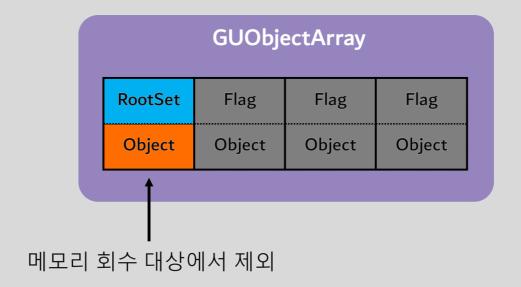
- 가비지 컬렉터는 지정된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메모리를 회수한다. (기본 값 60초)
- Garbage 플래그로 설정된 오브젝트를 파악하고 메모리를 안전하게 회수함.
- Garbage 플래그는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, 시스템이 알아서 설정함.



한 번 생성된 언리얼 오브젝트는 바로 삭제가 불가능함.

루트셋 플래그의 설정

- AddToRoot 함수를 호출해 루트셋 플래그를 설정하면 최초 탐색 목록으로 설정됨.
- 루트셋으로 설정된 언리얼 오브젝트는 메모리 회수로부터 보호받음.
- RemoveFromRoot 함수를 호출해 루트셋 플래그를 제거할 수 있음



콘텐츠 관련 오브젝트에 루트셋을 설정하는 방법은 권장되진 않음

언리얼 오브젝트를 통한 포인터 문제의 해결

- 메모리 누수 문제
 - 언리얼 오브젝트는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 자동으로 해결.
 - C++ 오브젝트는 직접 신경써야 함. (스마트 포인터 라이브러리의 활용)
- 댕글링 포인터 문제
 - 언리얼 오브젝트는 이를 탐지하기 위한 함수를 제공함 ::lsValid()
 - C++ 오브젝트는 직접 신경써야 함. (스마트 포인터 라이브러리의 활용)
- 와일드 포인터 문제
 - 언리얼 오브젝트에 UPROPERTY 속성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nullptr로 초기화 해 줌.
 - C++ 오브젝트의 포인터는 직접 nullptr로 초기화 할 것 (또는 스마트 포인터 라이브러리를 활용)

회수되지 않는 언리얼 오브젝트

- 언리얼 엔진 방식으로 참조를 설정한 언리얼 오브젝트
 - UPROPERTY로 참조된 언리얼 오브젝트 (대부분의 경우 이를 사용)
 - AddReferencedObject 함수를 통해 참조를 설정한 언리얼 오브젝트
- 루트셋(RootSet)으로 지정된 언리얼 오브젝트

(오브젝트 선언의 기본 원칙)
오브젝트 포인터는 가급적 UPROPERY로 선언하고,
메모리는 가비지컬렉터가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위임한다.

일반 클래스에서 언리얼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경우

- UPROPERTY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C++ 클래스가 언리얼 오브젝트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
- FGCObject 클래스를 상속받은 후 AddReferencedObjects 함수를 구현한다.
- 함수 구현 부에서 관리할 언리얼 오브젝트를 추가해 줌.

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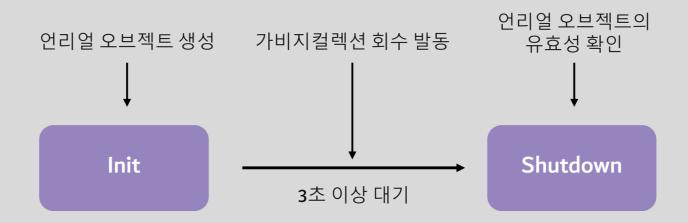
언리얼 오브젝트의 관리 원칙

- 생성된 언리얼 오브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레퍼런스 참조 방법을 설계할 것
 - 언리얼 오브젝트 내의 언리얼 오브젝트: UPROPERTY 사용
 - 일반 C++ 오브젝트 내의 언리얼 오브젝트: FGCObject의 상속 후 구현
- 생성된 언리얼 오브젝트는 강제로 지우려 하지 말 것
 - 참조를 끊는다는 생각으로 설계할 것
 - 가비지 컬렉터에게 회수를 재촉할 수는 있음 (ForceGarbageCollection 함수)
 - 콘텐츠 제작에서 Destroy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, 결국 내부 동작은 동일함. (가비지컬렉터에 위임)

언리얼 엔진의 메모리 회수 예시

가비지 컬렉션 테스트 환경 제작

- 프로젝트 설정에서 가비지 컬렉션 GCCycle 시간을 3초로 단축 설정
- 새로운 GameInstance의 두 함수를 오버라이드
 - Init: 어플리케이션이 초기화될 때 호출
 - Shutdown: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호출
- 테스트 시나리오
 -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Init 함수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
 - 3초 이상 대기해 가비지 컬렉션을 발동
 - 플레이 중지를 눌러 Shutdown 함수에서 생성한 오브젝트의 유효성을 확인



정리

언리얼 메모리 관리 시스템

- 1. C++ 언어의 고질적인 문제인 포인터 문제의 이해
- 2.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비지 콜렉션의 동작 원리의 이해와 설정 방법
- 3. 다양한 상황에서 언리얼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메모리에 유지하는 방법의 이해
- 4. 언리얼 오브젝트 포인터를 선언하는 코딩 규칙의 이해